

한가위 성묘 예배

(이 예배는 집안의 어른이 인도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자녀 중에서 인도해도 됩니다.)

예배에의 부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인 도 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사 40:6~8, 새번역)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앞서 가신 선조들을 기억하며 다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288장(통 204) 다 같 이

1.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후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2.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3.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량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공동기도 다 같 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함께 모여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과 함께 한 소중한 기억들이 저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움이 클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의 가르침이 저희의 삶 속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시간동안 ()과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이 저희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이 가족 간의 정이 더욱 깊어지게 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힘이 되어주는 가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되어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주님 앞에 서고, 다시 ()을 만나는 그날 하나님과 () 앞에서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디모데후서 1:3~5(새번역) 인 도 자

³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⁴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⁵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말 씀 조상들을 본받아 인 도 자

이미 우리 곁을 떠난 ()을 추모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 곁에 계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께 받은 믿음의 유산은 무엇이고,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자녀들에게 남겨줄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통해 함께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깨끗한 양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행동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나의 속마음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는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모두 다 아신다는 생각으로 양심에 거침낌 없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 또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디모데도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본받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이 거짓없는 믿음은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소유한 믿음이었습니디. 로이스와 유니게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 신앙을 디모데는 보면서 자랐습니디. 로이스와 유니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디. 하나님 앞에서 거짓없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디. 거짓없는 믿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거짓없는 믿음입니다. 유니게와 로이스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디모데도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때 다른 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어려움과 아픔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이 바로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디모데의 눈물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거짓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합니다.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거짓없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물려주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을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 송 384장(통 434) 다 같 이

1.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2.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죽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3.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의기도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 찬송은 가족들이 즐겨 부르던 것이나, 잘 아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교회 홈페이지 (www.yedarm.or.kr)에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자료실 > 가정예배)

 **예담교회**

www.yedarm.or.kr

0283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47-23
대표 926-0691, Fax 923-6818